

“앱 켜고 사진만 찍으세요”

서울 불법주정차 신고 쉬워졌다

기존 6단계 신고절차 간소화
차번호판 자동 인식기술 탑재
촬영해놓고 사후 신고도 가능



/유튜이미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가 간편해졌다. 앱을 실행한 다음 사진만 찍어 보내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1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시민들이 모바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12년 8월 출시한 서비스다. 최근 1년간 71만7181건이 신고돼 처리됐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6단계(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촬영만 하면 된다.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앱에 탑재

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 그동안 누락된 약 28만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 신호를 분석해 최적의 위반 유형도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종전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다.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을 추천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시는 향후 누락된 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졌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앱 전용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

게 저장되는 ‘앨범 저장’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윈스토어에서 다운받은 후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시민들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신고자가 차량 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고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김포시, ‘GTX-D’ 유치 서명 국토부 전달

10만 서명 전달하고 필요성 건의



정하영 김포시장(오른쪽)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0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김포에서 부천, 하남을 잇는 GTX-D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포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GTX) D노선 유치를 염원하는 10만 주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0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김포에서 부천, 하남을 잇는 GTX-D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출퇴근 시간이 교통의 시간일 정도로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GTX-D는 교통복지 실현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이 약속되는 건설적인 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17일 GTX-D 노선 유치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1단계)에 따라 오프라인 서명을 병행,

2개월 만에 10만 663명이 동참한 것은 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포시는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10월 ‘광역교통 2030’에서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 검토’를 밝힌 이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20년 2월 경기도, 부천시, 하남시와 함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5월에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8월에는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열어 지난 9월 17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돌봄 공백 메우는 ‘키움센터’ 100호 돌파

서울시 ‘광진3호점’ 개소
2년 5개월 만에 확대 성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100호점. /서울시

서울시는 초등학교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100호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성북구 장위1동에 처음 문을 연 이래로 2년 5개월 만이다.

100번째 센터인 ‘광진3호점’(자양로 71-7)은 18일 개소한다.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협력·상생하는 ‘융합형 키움센터’로 조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가 공공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초등돌봄을 본격화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부모의 상시돌봄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방학, 휴일 등에 돌봄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래 친구들과 협업하며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Project-Based Learning)’ 콘텐츠를 개발·적용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센터는 일정 기간 아이들을 정기적

으로 돌봐주는 ‘상시돌봄’과 학부모의 긴급상황, 학교 휴업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시돌봄’을 제공한다. 상시돌봄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일시돌봄은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가 문을 닫는 날이 많아지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모든 시설이 오전부터 문을 열어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시설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점심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 고민이 큰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정원 대비 등록률은 작년 말 68% 수준에서 지난 달 말 90%로 급등했다. 신청자가 몰려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센터는 일정 기간 아이들을 정기적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시작
1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광화문광장 일대 변경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동쪽(주한미 대사관 앞) 차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까지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도봉구에 공공돌봄 ‘종합재가센터’ 개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영등포구, 송파구, 양천구에 이어 18일 도봉구에 종합재가센터의 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종합재가센터는 자치구별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화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9월 영등포구, 송파구, 양

천구 3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했고, 연내 강동구, 중랑구, 서대문구에 추가로 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도봉종합재가센터는 총면적 261.6㎡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무실, 회의실, 휴게 공간, 상담실로 구성됐다. 이 센터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돌봄SOS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디자인재단
‘동대문 패션페어’ 라방 진행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 브랜드의 특·장점을 살린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패션 페스티벌 행사 ‘Online 동대문 패션 페어’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동대문 패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0개 참여 브랜드의 수익 창출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재단은 전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연말까지 하수도공사 품질 점검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시행한 하수도 보강사업 현장 186곳을 12월 말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 밑에 매설된 하수도의 보수공사 품질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은 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공사품질 확인, 준공도면과 적합 시공 여부, 안전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본다. /김현정 기자

점검 결과 품질기준 미흡 정도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중요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전문가와 함께 재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들뜸이나 균열 등 중대한 하자가 나오면 향후 보수·보강공사에 참여를 배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5 | 해질 / 17:19

11월 18일 (수)
음력: 10월 4일

수도권 날씨
15~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12/19
- 동두천 12/19
- 가평 9/18
- 파주 11/19
- 서울 15/20
- 양평 12/19
- 인천 15/19
- 수원 16/20
- 용인 16/20
- 평택 13/21
- 백령도 14/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